■ 민족문화연구 제96호(2022.8.31.),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pp.591-621.
http://doi.org/10.17948/kcs.2022..96.591

한국사상의 회통성과 코로나19의 정보소통*

이근용(李根用)**

목 차

1. 연구의 배경
2. 한국사상의 회통적 성격
3.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정보 소통
4. 한국사상의 회통성이 코로나19 정보소통에 준 시사점과 함의
5. 마무리 및 제언

국문초록

이 연구는 한국의 코로나19 방역 성과의 의의를 한국 사상의 성격과 연관시켜 살펴보고, 어떤 연결 고리가 존재하는지 찾아보고자 한다. 한국에서 전개한 방역활동은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는데, 이 연구는 그 요인으로 시민 의식, 정서, 태도의 바탕이 되는 한국사상의 성격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고자 하는 것이다. 이 연구에서 특히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은 한국사상이 갖는 회통적 특성이다. 한국사상의 회통성은 모순대립을 지양하는 '통'과, 중심을 잡고 상황에 적중하는'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일심으로 향상의 삶을 지향하는 성격으로 정리해 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정보소통에 대해서는 K-방역의 성과에도 불구하고 언론의 보도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별

* 본 논문은 2021년도 영산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음.
** 영산대 미래융합대학 교수.

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우울, 두려움을 넘어설 정신적 면역력과 종합적 사고에 도움이 될 정보 소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한국사상의 회통성이 정보 소통에 주는 함의는 '통'의 가치로서의 공감과 연대, '중'의 가치로서의 의식의 각성과 즐거움이라고 정리하면서, 이들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회통의 윤리를 제안했다. 회통의 윤리는 유불선의 종지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윤리를 포함하면서 모든 존재의 소통을 원활하게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보았다.

주제어: 코로나19, 한국사상, 회통성, 중도, 정보소통.

1. 연구의 배경

한국의 코로나19 상황은 지난 2년 반 동안, 시민들에게 크고 작은 우여곡절과 고통을 겪게 하고, 이제 서서히 안정화되는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시민들은 일단 겉으로는 일상으로 복귀하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는 모습을 보인다. 아직 상황이 종식되진 않았지만, 이젠 차분히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서 코로나19가 우리 사회에 던져준 의미를 짚어보고, 앞으로 닥칠 유사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1)]

한국이 코로나19 방역에 성공했느냐의 여부는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평가를 거친 후에 판단할 사항이지만, 적어도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주효했다는 데 대해선 일치된 평가가 내려지는 편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영업 제한, 백신 접종, 방역 패스 등의 조치가 취해질 때, 정부나 방역 당국에 대한 신뢰, 신속한 정보의 제공, 의료 인력과 음압 병실 등의 의료인프라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의 참여, 협조와 배려가 방역의 성패에 무엇보다 중요했다.

방역 조치가 사생활 침해,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민들

1)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이 주최한 제1회 한국학 페스티벌에서 〈사상으로서의 코로나〉 좌담회를 가진 것도 이러한 의도를 가진 의미 있는 기획으로 보며, 이를 계기로 앞으로 다양한 인문사회과학적인 관점으로 코로나19를 평가하는 연구가 이루어지리라 기대한다. 이 연구는 한국인들이 코로나19 방역에 참여한 데에 어떤 심성, 사상, 정서가 작용했을까 하는 궁금증에서 시작하여, 한국사상의 특성에서 그 단서를 찾아보고자 하는 시도이다. 진태원 외, 「사상으로서의 코로나: 제1회 한국학 페스티벌 좌담회 녹취록」, 『민족문화연구』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13-65면.

은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와 같은 격렬한 저항 없이 방역에 협조했다. 한국은 초기에 비교적 성공적으로 대처하여, 외국으로부터 모범적인 사례로 평가 받기도 했다.[2] 국내적으로도 방역 정책과 조치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21대 총선(2020.4.15일)에 영향을 주어 여당이 압도적으로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데 기여하기도 했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 배경 요인에 대해서는 여러 측면으로 분석이 가능할 것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중요하다면, 이에 대한 분석과 설명을 다양하게 시도하여 미래 유사 재난에 대비하는 것도 필요하다. 유교 전통의 공동체 문화, 국가 위기 때에 더욱 발휘되는 국난 극복의 의지, 사스, 세월호, 메르스 사태 등 최근의 위기관리 경험 등과 같은 여러 요인으로 한국의 방역을 분석할 수도 있다.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복잡성을 띤 사건이 발생하여 불확실하게 사태가 전개될 때, 이에 대한 사람들의 대처는 바탕의 심성에 따라 거의 본능적으로 이루어진다. 이런 상황에서는, 평소엔 잘 드러나지 않는 심층의식의 발로, 무의식적 판단과 반응이 나타난다.

최근에 이루어진 한국의 방역 관련 연구들은 시민들의 방역 참여 활동을 주로 정부 혹은 정치 신뢰와 연관 지어 설명한다.[3] 한국의 코로나19 방역을 위기관리 혹은 문화정치라는 틀로 시공간 맥락 속에서 평가하는 연구들도 있다.[4] 후자의 연구들은 코로나19 위기를 겪은 시민들의 의식과 경험을 문화연

---

2) 제프리 삭스(Jeffrey Sachs) 교수 등이 작성한 『지속가능발전 보고서 2020』에 담긴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의 방역 대처능력 평가결과에서, 한국은 사망률, 재생산비율, 전염통제효율성, 이동감소 등의 지표로 구성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지수(covid index)에서 33개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홍콩의 싱크탱크 DKG의 코로나19 안전도 평가결과에 따른 100대 안전국가 명단에서(2020.9.3일자 미국경제지 포브스 기사), 한국은 조사대상국 250개 가운데 3위로 나왔다. 강수택, 「글로벌 팬데믹 시대, 연대영역의 변화양상」, 『사회와 이론』 37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20, 205-206면 참조.

3) 고길곤・김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행정논총』 58-4,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2020, 1-29면; 김석동, 「한국의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민주적' 발전국가의 역할: 국가역량의 제도적 진화와 거버넌스 평가」, 『국제정치논총』 62-1,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45-91면; 오현진,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7-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 1-35면.

4) 이동헌・이향아, 「전염병 위기 관리하기: 2020년 한국의 코로나19 전염병 위기와 국가-사회관계」, 『경제와사회』 129, 비판사회학회, 2021, 39-81면; 박진우, 「팬데믹의 순간과 '뉴노멀'의 문화정치: 위기 국면의 담론 구조에 대한 비판」, 『한국언론정보학보』 109, 2021, 9-39면.

구(cultural studies)의 관점으로 들여다본다. 삶의 방식과 경험들을 중시하는 문화연구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이들은 코로나19 위기 관련 요인들을 담론 구조와 시공간 맥락 속에서 다루며 의식과 삶의 방식의 전환을 제안한다.

이들 연구는 한국의 방역 정책과 조치에 대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조를 일정 부분 설명하고 평가하는 측면도 있으나, 그 이유를 심층적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 악수를 주먹이나 팔뚝 인사로 대신하고, 어색하고 불편한 마스크 착용을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는 일상의 변화가 자연스럽게 일어난 것을 정부나 방역 당국 혹은 정치의 신뢰 여부, 위기관리 틀로 설명하는 것은 어딘가 한계가 있어 보인다. 시민들의 방역 참여엔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무언의 교감, 정서, 심층의식 같은 것이 작용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연구는 이것에 대한 관심과 탐색, 성찰에서 출발했다. 무엇이라고 명확하게 지칭하기 어렵고 포착하기는 어려우나, 시민들의 의식 저변에 흐르는 어떤 흐름 같은 것이 있지 않을까 하는 유추 혹은 진단에서 시작했다.

적어도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초기에, 한국의 정부기관, 지자체, 의료계, 연구진, 국민들은 합심, 협력하여 세계적으로 모범적인 방역 활동을 펼치고 위기를 넘긴 것으로 평가 받는다. 이런 평을 받게 된 배경에는 당국의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처, 메르스 방역의 경험, 시민의 협조 등 여러 요인이 있겠으나, 이 연구에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 활동을 주목하고, 그 저변에 작용했을 한국의 전통사상, 심성, 의식, 정서 등을 찾아보고자 한다. 또한 그것이 어떤 시사와 함의를 전해 주는지 탐색해보고자 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표는 일차로 한국의 코로나19 방역과 정보소통 활동, 그리고 한국사상의 성격 사이에 어떤 연결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그럼으로써 코로나 상황과 관련하여 발생한 여러 현상과 정보 소통을 이해함과 동시에 앞으로 계속 닥쳐올 변이 바이러스들에 대처하는 효율적 조치와 바람직한 방안을 강구하고 전개하는 데 기여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사상의 성격을 보는 관점은 연구자에 따라 얼마든지 다를 수 있으나, 이 연구에서 특히 조명해보고자 하는 것은 한국사상이 갖는 회통적 특성이다. 한국을 포함한 동양의 전통 사상은 일반적으로 유불선(儒佛仙) 사상으로

통칭된다. 이 중에서 특히 한국에서는 유가와 불가 사상이 회통되는 현상을 보이면서, 선가 사상이 시대적으로 부침이 있긴 하지만 하나의 맥으로서 민족의식의 저변에 흐르는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 대체로 연구자들의 공통된 견해로 보인다.[5]

한국사상의 특성과 개념들을 깊이 천착하는 연구는 그동안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이들을 구체적 상황이나 현실에 접목하여 그 가치를 조명하는 연구들은 그리 많지 않았다. 이 연구는 이 점에 착안하여 한국의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언론보도 활동을, 한국사상의 회통적 특성과 주요 개념을 단서로 하여 이해하고 설명해봄으로써, 실제 상황에 대처하는 데도 도움을 주고, 한국사상의 가치를 인식하는 데도 기여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논의의 순서는 먼저 한국사상의 회통적 성격을 기존의 연구 성과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전개와 방역 조치 및 활동, 그리고 정보 소통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관련 자료와 문헌을 중심으로 정리해본 다음, 한국사상의 성격과 팬데믹 상황의 대처, 소통 사이의 연결고리를 찾아보고 이것의 시사점과 함의를 논해보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사상의 회통적 성격

한국사상의 특성을 간단히 한두 마디로 말하기는 어렵다. 무엇을 한국사상이라고 규정할지 연구자들 사이에 합의된 바가 있지도 않다.[6] 그렇지만 한국사상의 일단이라도 소개하거나 특성을 논의할 때 흔히 언급되는 것이 회통적 성격이다. 최치원이 일찍이 난랑비서에서 유불선 삼교를 포함한다는 '풍류'를 언급한 데서 유추해볼 수 있듯이, 한국사상의 회통성은 그 연원에서부터 유래된 것으로 보아도 좋을 것이다.

---

5) 김용휘, 「한국선도의 전개와 신종교의 성립: 왜 한국에선 도교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는가」, 『동양철학연구』 55, 동양철학연구회, 2008, 159-160면 참조. 여기서 선도는 중국의 도교와 다른 것으로 무속, 민족종교사상을 포함한 한국의 고유한 신앙과 문화가 중국의 도교와 습합된 것을 가리키는 것으로 본다. 같은 글, 143면.

6) 유원기, 「한국사상과 한국철학」, 『大同哲學』 93, 대동철학회, 2020, 359-382면.

고려시대는 불교, 조선시대는 유교를 국교로 삼았으니, 시대별로 주류로서 두드러진 사상이 있긴 했으나, 삼교는 한국의 사상적 토대로 늘 같이 존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현대에 와서 한국인들이 모든 종교를 수용하면서 어떤 사상도 배척하지 않는 포용성을 보이는 것도 한국사상의 회통성을 짐작해볼 수 있게 하는 한 단면이라 할 수 있다.

한국사상의 핵심에는 늘 마음과 마음 바탕, 즉 심성(心性)에 대한 관심과 관점이 있다. 심성을 어떻게 찾고 보존하고 기르느냐에 따라 유불선이 갈린다. 마음을 보존하고 바탕을 잘 키우라는[存心養性] 유가, 마음을 밝히고 바탕을 잘 보라는[明心見性] 불가, 마음을 닦고 바탕을 잘 단련하라는[修心鍊性] 선가 또는 도가가 모두 심성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유가, 불가, 도가의 경전 속에서 선지식들이 그 정수를 발견하고 이에 대해 남겨 놓은 핵심 요의와 풀이들 속에서 사상의 회통성을 가늠해볼 수 있다.

한자경은 한국철학의 기본정신을 일심 사상의 전개로 보고, 원효, 의상, 지눌, 정도전, 권근, 이황, 이이, 최제우 등의 사상을 통시적으로 하나의 맥으로 꿰어 고찰하며, 원효의 성자신해(性自神解), 지눌의 공적영지(空寂靈知), 조선 성리학의 미발지각(未發知覺), 최제우의 인내천 사상 등을, 인간 각자의 심성 안에서 보편적 하나가 그 자체로 자각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 설명한다.[7] 한국 사상 속에 일심 사상이 하나의 맥으로 흐른다고 보는 것이다.

한국사상을 포함한 동양사상의 회통적 성격에 관한 기존 연구들은 주로 유교와 불교의 회통에 대해 다루었다.[8] 유불이 심성(心性)의 문제를 어떻게

---

7)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이화여대 출판부, 2008.

8) 이에 대한 연구는 과거부터 꾸준히 이루어져 왔으나, 최근의 연구들을 보아도 그 경향은 뚜렷해 보인다. 권기완, 「탄허선사의 유교 경전에 대한 불교적 해석: 『논어』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1, 한국불교학회, 2017, 215-245면; 김용환, 「법계와 복례의 회통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6-2,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0, 1-16면; 박정원, 「조선 초·중기 불교와 유교의 심성론과 상호인식: 공적영지와 미발지각 개념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62, 한국사상사학회, 2019, 89-126면; 오경후, 「麗末鮮初 己和의 儒·佛會通論」, 『韓國思想과 文化』 3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95-126면; 전준모, 「淸寒 雪岑의 『曹洞五位要解』 연구」, 『한국불교사연구』 19, 한국불교사연구소, 2021, 213-240면; 정성식, 「고려 중·후기 유학자의 불교 교섭」, 『東洋古典硏究』 83, 동양고전학회, 2021, 9-32면; 최일범, 「中道思想과 中庸思想의 세계관과 인식방법에 관한 고찰」, 『종교연구』 8, 한국종교학회, 1992, 13-28면; 최재목, 「탄허의 철학사상에 보이는 '會通'적 사유의

보고 다루느냐를 중요시하고 심성의 닦음에 관한 가르침을 종지로 삼는다는 점에서 이미 회통의 씨앗을 품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재목은 한국의 걸출한 인물들이 펼친 회통적 사유의 바탕을 '풍류론적 사유틀'이라고 부른다.[9] 한국사상의 연원이나 바탕을 논할 때, 최치원이 언급한 '풍류'는 흔히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10] 박종천은 풍류를, '삼교의 문화적 다양성을 포용하는 종교 문화적 수용성의 에토스(ethos)'라는 관점, 즉 '유교, 불교, 도교처럼 다른 종교들과 구별되는 구체적인 종교 전통이 아니라 문화적 기풍이나 습관인 에토스'라는 개념으로 볼 것을 제안한다.[11] 풍류를 하나의 사유틀이나 문화적 기풍으로 해석할 수 있다면, 한국사상이 회통적 특성을 갖는 하나의 단서도 여기서 찾아볼 수 있다.

최치원은 난랑비서에서 "나라에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라 하고, 이것은 삼교를 포함한 것으로서 뭇 생명을 접해서 교화한다"고 했다. 또, 삼교의 대표적인 가르침을 하나씩 드는데, '들어와서는 집에 효를 행하고 나가서는 나라에 충을 행한다는 공자, 함이 없는 처신과 말이 없는 가르침을 행한다는 노자, 선을 받들어 행하고 악을 짓지 않는다는 석가의 가르침'을 각각 예로 제시한다. 풍류는 이 모두를 포함한다고 했으니 그 사유와 실천의 폭이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12]

근저: 예언, 민족주의, 신비주의의 '풍류도적 방법'에 대해」, 『文학 史학 哲학』 33,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166-203면; 황의동, 「震默大師와 儒教와의 대화」, 『韓國思想과 文化』 56,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307-342면.

9) 최재목, 앞의 글, 176면.

10) 박종천, 「풍류(風流)로 보는 한국종교의 에토스」, 『민족문화연구』 8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79-116면; 유동식, 『풍류도와 예술신학』, 한들출판사, 2006; 윤석효, 「신라 下代의 固有思想硏究」, 『역사와 실학』 31, 역사실학회, 2006, 1-52면; 이난수, 「근대전환기 '風流' 인식으로 본 한국사상의 원형문제」, 『陽明學』 51, 한국양명학회, 2018, 375-399면; 장현오, 「東學의 韓民族 精神史的 意義」, 『철학논총』 99, 새한철학회, 2020, 219-251면; 정연수,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중등 교과서 문제」, 『동양철학연구』 101, 동양철학연구회, 2020, 197-228면; 황준연, 『한국사상의 길라잡이』, 박영사, 2001.

11) 박종천, 앞의 글, 84면.

12) 「新羅本紀」, 『三國史記』 卷4 眞興王, "崔致遠鸞郎碑序曰 國有玄妙之道 曰風流 設教之源 備詳仙史 實乃包含三教 接化群生 且如 入則孝於家 出則忠於國 魯司寇之旨也 處無爲之事 行不言之教 周柱史之宗也 諸惡莫作 諸善奉行 竺乾太子之化也"

유불선의 성인들을 비롯해 한국의 선지식들이 인간 심성의 본질을 천착하고 그 속에서 삶의 이치와 도리를 찾아가는 과정에 준거로 삼은 대상은 인간의 생각, 감정, 오감과 우주 자연의 운행 원리이다. '궁극에 이르면 통하고, 통하면 변하고, 변하면 오래 간다'[13]는 이치 역시 그 과정을 거쳐 나온 통찰이다.

한국사상의 바탕에는 이 '통'(通)의 흐름이 있다. 사상의 회통성 자체가 바로 이 통의 속성을 보여주는 것이다. 김교빈은 한국 불교의 특징을 '통(通)불교, 원융(圓融)불교, 합침의 불교'라고 하면서, 이러한 전통이 원효에서 시작됐다고 본다.[14] 원효의 회통은 화쟁(和諍) 사상으로 잘 알려져 있다. 화쟁은 '서로 다른 학설들 가운데 어느 하나를 고집하거나 버리지 않고 학설 사이의 모순과 대립을 해소해 손상 없는 원융회통(圓融會通)을 이루는 것'이다. 원효는 '나라간의 투쟁과 사상의 대립을 근본적으로 종식시키고 평화를 가져올 수 있는 사상원리'를 찾고자 했으며, 화쟁을 이룰 수 있는 근거로 진여문과 생멸문을 하나로 품은 '일심(一心)'을 제시했다.[15]

한국사상 중에 통의 사상을 선명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최한기의 기학, 운화 개념에서이다. 그가 제시한 삼대운화, 즉 천인운화(天人運化), 활동운화(活動運化), 통민운화(通民運化)는 한국사상의 통 지향성을 뚜렷이 보여준다. 박희병은 최한기의 기, 운화, 자연의 개념을 통의 관점에서 해석한다. 그에 따르면, 최한기의 기학에서는 운화기가 절대화된다. 운화기는 '인식과 존재의 근거일 뿐만 아니라, 가치의 준거'이기도 하다.[16] 최한기의 사상에서 '자연'은 이중의 의미를 갖는 바, 하나는 존재근거로서의 자연이고 다른 하나는 존재로서의 자연이다. 이 둘은 서로 '통(通)'한다. 이 경우 '통'한다는 말은, 존재근거로서의 자연이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연에 들어와 있고 개별적 존재로서의 자연은 존재근거와 항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최한기의 사유체계에서 볼 때, '모든 존재는 자연이자, 자연내 존재이며, 자연의 일부분'이다.[17]

---

13) 「繫辭傳」, 『易經』, 하편 2장, "窮則通 通則變 變則久"
14) 김교빈, 『한국철학 에세이: 인물로 보는 우리 철학의 흐름』, 동녘, 2008, 49면.
15) 황광욱・정성식・임선영, 『한 권으로 읽는 한국철학』, 동녘, 2007, 104면.
16) 박희병, 『운화와 근대: 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 돌베개, 2003, 125면.
17) 같은 글, 186면.

'통'과 함께 한국사상의 바탕에 깔린 중요한 속성으로 주목해볼 수 있는 것은 '중'(中)이다. 중용, 중도, 시중(時中), 공(空)도 아니고 가(假)도 아닌 중이라고 할 때의 그 중이다, 한국인의 마음속에는 통과 함께 중을 중시하는 관점이 존재한다. 이 '중'은 가운데라는 뜻보다는 알맞음, 딱 들어맞음이라는 뜻에 가깝다. 어떤 상황에 잘 어울리면서 알맞게 잘 들어맞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아름답게 여기는 심성이 한국인의 마음 바탕에 있다. 집 짓는 목수의 눈대중, 도자기 굽는 도공의 장인정신, 활 쏘는 궁수의 무심 속에 이 '중'의 속성이 있다.

박기철은 중에 대해서, '평면적인 정점(center)이 아니라 입체적인 동점(pivot), 손으로 만져지는 사물이 아니라 어떤 이념이나 사상, 생각이 조화롭게 되는 균형점이나 구심점, 이도저도 아닌 어중간한 중간점(stuck in the middle)이나 중간색이 아니라 조화로운 중심추나 중심축(harmonious mean)'과 같이 다양하게 개념화한다.[18] 존재론적 관점으로 『중용』의 중을 다루는 황경선은 천도(天道), 인도(人道),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세 차원으로 설명한다.[19] 그는 인도 차원으로의 중에 대해서, '천하의 한 이치인 중은 세상 밖에 초월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자인 용과 함께 속하며, 미발(未發), 은닉에서 이발(已發), 발현으로 전향하는 이행이며 사건이고, 안에 간직된 채로 이미 있어왔던 것이 밖으로 환히 드러나 가까이 머무는 것'[20]이라고 하여, 무소부재의 역동적인 개념으로 설명한다.

불교의 중도는 초기 불교에서 사성제, 팔정도, 십이연기 등을 가리키며 치우치지 않는 바른 수행의 도리를 강조하던 의미에서 용수(나가르주나)의 『중론』 이후는 공가중(空假中), 진속이제(眞俗二諦), 사구게(四句偈) 등의 개념을 포함하는 존재론적 인식론적 의미로 확장된다. 모든 존재는 인과 연의 얽힘에 의존하는 존재로서 존재론적으로 중도라는 나가르주나의 사유에서 중도

18) 박기철, 「정치홍보가 아닌 PR정치란 무엇일까?: 의미정립, 관련사상, 역할방향 제안」, 『한국소통학보』 18, 한국소통학회, 2012, 140-141면.
19) 황경선, 「존재론적 관점으로 본 『중용中庸』의 중中 개념」, 『철학탐구』 55,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19, 1-30면. 여기서의 논의와 관계 있는 『중용』 1장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喜怒哀樂之未發 謂之中 發而皆中節 謂之和 中也者 天下之大本也 和也者 天下之達道也 致中和 天地位焉 萬物育焉"
20) 같은 글, 14면.

란, ‘실천적으로는 대상의 근기에 적중(適中)하게 행하는 붓다의 대기설법에 서처럼 행위의 기준’이 된다.[21] 신라 의상의 화엄사상에도 중도는 중요한 사유의 원천이 된다. 의상의 「화엄일승법계도」에 나타난 중도적 사유를 분석한 정호영은 ‘유도 아니며 동시에 무도 아닌 것’[非有非無]으로 설명되는 중도는 대상에 대한 부정이 아니라 자기 부정으로 이해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22]

이러한 불가와 유가의 중에 대해서, 의상의 일승법계와 유교의 극기복례의 회통이라는 관점으로 논의한 김용환은 ‘일승법계와 극기복례가 중도에 의한 일승상달(一乘上達)로 회통’할 수 있다고 본다.[23] 그에 따르면, “나와 남을 모두 살리고 함께 살면서 어울리는 일승상달의 ‘우리’ 세계에서 ‘나 없는 지극한 나’이면서 화엄의 ‘나 아닌 큰 나’(不我之大我)로 화현하며, 고유성과 개성을 유지하면서 크고 깊은 인연을 두루 살피는 마음이 일승상달에서 예절로 나타나며 중도로 회통”[24]할 수 있다는 것이다. 원시유교의 중용과 원시불교의 중도 사상을 비교한 최일범 역시 두 사상이 ‘상의성(相依性), 대대성(對待性)을 긍정하는 중(中)의 세계관을 공유’한다고 설명한다.[25] 이들의 설명은 모두 유불이 대아와 대승의 마음으로 회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현대에 유불선 사상의 회통성을 보여준 인물로 주목받는 선지식은 탄허 선사이다.[26] 최근 탄허 선사의 유불선 삼교의 회통 사상을 활발히 연구 중인 문광은 유가의 중화(中和)와 불가의 일심이문(一心二門)을 다음의 도표로 요약한다. 마음 바탕과 심성을 천착해 들어가는 유불선 사상이 심층 차원에서 두

21) 조해정, 「상호문화적 대화의 관점에서 본 플라톤과 나가르주나: 중도와 적도 개념을 중심으로」, 『코기토』 84,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8, 55면.
22) 정호영, 「『화엄일승법계도』에 나타난 의상의 중도적 사유」, 『불교연구』 42, 한국불교연구원, 2015, 221-251면.
23) 김용환, 앞의 글, 13면.
24) 같은 글, 13-14면.
25) 최일범, 앞의 글, 27면.
26) 고영섭, 「탄허 택성의 老莊觀과 佛教觀: 노자도덕경 選註와 장자남화경 講解를 중심으로」, 『文학史학 哲학』 33,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62-98면; 권기완, 「呑虛宅成과 東洋思想: 『周易』의 宗旨와 『老』·『莊』의 注解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8, 한국불교학회, 2016a, 217-246면; 「탄허선사의 유교 경전에 대한 불교적 해석: 『논어』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1, 한국불교학회, 2017, 215-245면; 이원석, 앞의 글; 최재목, 앞의 글.

루 회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표1. 중화(中和)와 일심이문(一心二門)의 유불회통도(儒佛會通圖)

心	中	미발지중(未發之中) = 대본(大本) = 체(體) = 정(靜) = 상달(上達) = 적연부동(寂然不動) = 명덕(明德) = 존양(存養) → 불성지이명(佛性之異名)	眞如門
		= 사마타 = 지(止) = 정(定) = 선정(禪定) = 적(寂) = 불생(不生) = 묵(默) = 공적(空寂) = 적적(寂寂) = 쌍차(雙遮) = 진공(眞空) = 제법공상(諸法空相) = 대기(大機) = 향상구(向上句) = 본각(本覺)	
	和	이발지화(已發之和) = 달도(達道) = 용(用) = 동(動) = 하학(下學) = 감이수통(感而遂通) = 명(明) = 성찰(省察) → 육도만행지총목(六度萬行之總目)	生滅門
		= 위빠사나 = 관(觀) = 혜(慧) = 지혜(智慧) = 조(照) = 불멸(不滅) = 영지(靈智) = 성성(惺惺) = 쌍조(雙照) = 묘유(妙有) = 제법실상(諸法實相) = 대용(大用) = 향하구(向下句) = 시각(始覺)	

출처: 문광, 「탄허선사 유불회통론의 '탄(呑)적 가풍' 연구: 유교 『중용(中庸)』의 미발론(未發論)과 관련하여」, 『文학 史학 哲학』 28・29, 한국불교사연구소, 2012, 112면.

미발이발, 불생불멸, 쌍차쌍조, 불일불이와 같이 언뜻 들으면 모순되게 들리는 개념을 설명하기 위해 이원선은 양자인지심리학과 뇌신경과학을 동원한다. 양자인지심리학으로 보면, 파동과 입자라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성질들이 물질세계의 하나의 사물에 동시에 갖추어지듯이, 정신세계에서도 이러한 양자역학 이론을 적용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개인은 happy와 unhappy라는 두 가지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기는 하지만, 그 어느 쪽에도 얽매이지 않은 상태 즉, happy와 unhappy라는 두 가지 상태에 머물면서 동시에 머물지 않는 마음의 중첩상태가 성립" 가능하다는 것이다.[27] 또, 뇌 신경과학으로 보면, "뇌량은 좌뇌와 우뇌를 연결해줌으로써 둘 중 하나에 치우치지도 않으면서 둘을 무너뜨리지도 않고 중심을 잡게 도와주므로, 중도란 이러한 뇌량으로 비유될 수 있다"는 것이다.[28]

27) 이원선, 「원융중도사상과 현대심리학과의 관련성 연구: 천태의 원융사상과 양자인지심리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9, 한국불교학회, 2019, 354면.
28) 이원선, 「공・가・중 삼제삼관 원리에 관한 신경과학적 고찰: 뇌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93, 한국불교학회, 2020, 399면.

이상 살펴본 대로, 한국사상의 회통적 성격의 핵심을 이루는 키워드는 '통'과 '중'이라고 할 수 있다. 통은 경계를 넘나들며 다름을 인정하고, 대립하고 모순되는 양 쪽을 끌어안고 화합하는 것이다. 중은 양 극단을 떠나 중심을 잡고 핵심을 놓치지 않으면서 상황에 적중하여 잘 들어맞는 것이다. 원효의 화쟁론, 의상의 화엄사상, 최한기의 기학에는 통의 성격이 두드러지고, 최치원의 풍류, 탄허의 유불회통론에는 중의 성격이 두드러진다고 할 수 있으나, 한국사상의 바탕에는 대개 통과 중의 요소가 함께 담겨 있어서 회통적 성격이 드러난다. 한국사상의 이러한 회통성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소통에 주는 시사나 함의를 논의해보기 전에 먼저 코로나19 초기 상황에서 정보소통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관련 연구를 중심으로 정리해본다.

3. 코로나19 팬데믹 상황과 정보 소통

코로나19는 우리 사회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두드러진 변화 중의 하나는 비대면, 비접촉의 일상화와 그로 인한 소통 방식의 변화이다. 소통 방식이 변하면서 소통의 내용과 주체들의 변화도 뒤따랐다. 확인하기 어려운 조작된, 추측성 정보들이 넘쳐나고, 오프라인 기반의 소상공인들과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은 더 어려워지는 데 반해, 온라인 기반의 빅테크, 플랫폼 기업들과 사회 상층부는 더 번성하는 차별화, 양극화 현상이 심화됐다.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일부 'K-방역의 성공이 성급한 판단'이라는 지적도 있고,[29] 한편에서는 한국의 방역방식이 인권 침해, 프라이버시 침해의 소지가 크다는 비판도 제기되고,[30]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상황이긴 하지만, 대체로 한국의 초기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는 받아들여지는 분위기다.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나라가 코로나19 팬데믹

29) 박순열,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 사회의 가능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 『공간과 사회』 30-3,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88면.

30) 김재인, 『뉴노멀의 철학』, 동아시아, 2020, 45면; J. P. DiMoia, "Contact tracing and COVID-19: The South Korean context for public health enforcement,"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14*(4), 2020, pp.657-665.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며 적절히 대응하지 못했다. 국내에서는 2020년 1월 20일, 첫 확진자가 발생한 이래, 2020년 2월 말, 8월 중순, 12월 초의 3차례 대유행을 겪었다. 2021년에 들어와서는 고령자부터 백신 접종이 순조롭게 진행되던 차에 7월 초에 4차 대유행을 맞았고, 이후에는 델타,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들의 확산으로 방역에 어려움을 겪다가 2021년 말에는 단계적 일상 회복을 시도했다. 2022년에 들어와서는 오미크론의 급속한 확산으로 3월 중, 확진자수 최고치를 연일 갱신하는 피크타임을 지난 후, 현재 서서히 위드 코로나 단계를 밟고 있다.

코로나19가 인간에게 던져준 성찰의 대상, 과제들은 얼마든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겠으나, 본 연구의 주제와 관련하여 살펴보고 싶은 것은 정보소통, 사회 윤리와 관련된 문제들이다. 불안하고 위험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이 부딪치는 여러 난관과 시련들을 헤쳐 나가는 데 가장 긴요한 것은 상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와 어려움을 겪는 이웃과의 공감, 연대일 것이다. 정의철이 지적한 대로, '불평등과 다양성의 시대, 장애인, 이주민, 성소수자, 노인, 빈곤층, 불안정노동자 등이 겪는 건강문제와 이에 영향을 주는 불평등, 그리고 이들의 건강에 대한 요구가 공론화되는 과정에는 보건소통연구의 역할이 필수적'이며,[31] 코로나19 상황이 바로 그 시기에 해당된다.

무방비 상태에서 갑자기 감염되어 어려움에 빠진 사람들과 정확한 정보로 소통하고 공감하면서 서로 도움의 손길을 뻗는 것이 감염병 방역에선 무엇보다 중요한다. 안종주가 코로나19 방역이 초기에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었던 것은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유행이라는 두 사회적 백신이 작용'했기 때문이라고[32] 언급한 것도 신뢰와 공감의 중요성을 지적한 것이다. 세월호 참사를 보며 가슴 아파 하고 기자들의 오보에 분노하던 시민들과, 메르스 환자가 거쳐간 병원을 보건 당국이 공표하지 않아 불안하고 당국의 발표를 불신했던 시민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정부의 달라진 대처와 투명한 정보 공

31) 정의철, 「감염병 위기 속 '시민됨'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성찰: 불평등에 맞선 '보건소통연구'의 역할 탐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17-2. 한국언론학회, 2021, 211면.
32) 안종주, 『코로나 전쟁, 인간과 인간의 싸움』, 동아엠엔비, 2020, 201면.

개 등을 보면서 방역에 적극 참여한 것이 성공의 밑거름이 된 것이다.

정보 소통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감염병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의 제공이다. '위기가 발생하면 빠른 커뮤니케이션 전략을 수행하는 것'이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전략의 기본이다.[33] 팬데믹 상황에서는 '전자정부 역량이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신뢰성과 정확성, 정부에 대한 신뢰에 영향을 미치고,'[34] 이것이 결국 방역의 성공 여부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여기에 시민들의 소셜미디어 활용과 앱 개발 역량이 자발적 참여, 아이디어 제공의 촉발 요인이 된다.

한국의 초기 방역의 성공요인으로 보통 '4T, 즉 진단(Test), 추적(Trace), 치료(Treat), 투명(Transparency)을 꼽는데, 여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신뢰(Trust)'이며, 이것은 '현 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 국민에 대한 정부의 신뢰, 공동체 구성원들 서로 간의 신뢰'를 포함한다.[35] 이 중에서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에 가장 중요한 것은 공동체 구성원들 간의 신뢰이다. 극단적 이동 제한이나 봉쇄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코로나19 감염을 막아내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각자의 생활공간에서 나와 남을 동시에 배려하는 노력과 정성을 기울여야 한다. 강철(2020)이 제안한 대로, '자가 격리'보다는 '격리 중 자기 돌봄'을, '사회적 거리두기'보다는 '감염확산 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라는 메시지를 쓰는 세심한 배려가 더 바람직하다.[36]

코로나19 팬데믹 같은 상황에서는, 이그나티에프(M. Ignatieff)가 강조하는 '평범한 미덕을 일상에서 실천하는 것'이 가장 실효성 있는 방역이라 할 수 있다.[37] 그는 공동체 위기의 경험을 겪은 세계 7개 지역(뉴욕, 엘에이,

33) 권호천,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새녘출판사, 2021, 317면.
34) 이슬기・이혁규・유나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자정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4-4,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2021, 271-305면.
35) 이종원, 「혐오에서 공감과 환대에로: 코로나19 시대의 공감과 환대」, 『기독교사회윤리』 49,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1, 128면.
36) 강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메시지는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가?: '격리 중 자기돌봄'과 '감염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철학』 143, 한국철학회, 2020, 88면.
37) Ignatieff, M., 박중서 역, 『평범한 미덕의 공동체』, 원더박스, 2018, 301면.

리우데자네이루, 보스니아, 미얀마, 후쿠시마, 남아프리카공화국)을 방문하여, 평범한 사람들이 내면에 품고 있는 가치가 무엇이며, 이들을 움직이는 진정한 동력이 무엇인지를 관찰하고 평범한 미덕의 구축이 중요함을 발견했다.

한국의 방역이 비교적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된 데는 의료진의 헌신적 봉사, 정부와 보건 당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 지자체의 주도적 방역,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인프라 등 여러 요인이 있지만, 무엇보다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와 협조가 주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이다. 이 과정에서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한 제도권 언론은 정부의 방역 지침과 활동에 비판적인 논조의 보도를 해왔다. 대부분의 주류 언론은 외국인 입국 관리, 백신 확보와 접종, 재난지원금 지급 등의 정부 시책에 우호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았다. 언론에 K-방역 성공이 언급되기 시작해 의미망에 포착된 것은 방역활동 개시 후 몇 개월이 지난 2020년 4월말 이후이다.[38] 외국에서 오히려 한국의 방역을 평가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일부 진보적 언론과 소셜미디어들이 소개하면서 국민들이 K-방역에 대해서 자긍심을 갖게 되는 현상을 보였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못지않게 왜곡된 정보가 전염병처럼 퍼져나가는 현상은 세계 곳곳에서 관찰됐다. 잘못된 정보가 미디어, 인터넷 등을 통해 전염병처럼 급속하게 퍼져나가는 인포데믹 현상이 심해지면 잘못된 치료법으로 목숨을 잃기도 하고, 사회적 약자를 희생양으로 삼거나 혐오의 감정을 퍼뜨리기도 한다. 가짜뉴스 관련 기존연구들을 보면 가짜뉴스 수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정치적 신념이나 관련 지식 정도를 포함하는 정치적 성향, 합리적 또는 경험적으로 제시된 정보를 처리 및 수용하는 정보처리 성향과 함께, 언론에 대한 신뢰도 및 미디어/뉴스 리터러시'가 중요하게 지적되는데,[39] 제도권 언론이 왜곡된 정보의 전파에 가세하거나 언론이 신뢰를 잃은 상태에서 가짜뉴스는 더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코로나19 초기 약 2개월간의 국내 뉴스 기사를 분석한 김태종은, 앞으로

38) 조민정・이신행,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자료기반 자동화 프레임 추출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0-1, 한국소통학회, 2021, 95면.
39) 최창식, 「가짜뉴스에 대한 감정이 사실 확인 노력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7-1, 한국언론학회, 2021, 22면.

의 언론 보도 방향으로, ‘불안’ ‘공포’ 등의 자극적인 표현을 자제하고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보도용어 사용, 단순 사건 보도식 뉴스제작을 탈피하여 더욱 심층적이고 맥락적인 뉴스 제작, 시민주도의 위기 극복 노력을 중점적으로 조명하는 보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40] 코로나19 초기 약 4개월간의 뉴스 기사를 보수와 진보 언론으로 나누어 이슈 주기별로 분석한 연구는 ‘주요 언론이 대응과 방역에만 집중하여 의제들이 다양하게 논의돼야 하는 공론장 기능을 충실히 해내지 못했고, 공중들에게 코로나19에 대한 과도한 불안감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는 비판도 제기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41] 이들의 연구는 ‘인류가 근대로 발전하면서 쌓인 모든 모순이 드러나고, 하던 대로는 미래가 없다는 각성이 생겼지만 각성을 실현할 활로가 마땅치 않다는 것이 코로나 시대 곤경의 핵심’인 상황에서,[42] 정확한 사실의 확인과 충실한 정보 소통이 상황 극복의 토대가 돼야 함을 지적한 것이다.

황치성은 코로나19 확산 초기에 가짜뉴스가 특수한 바이러스처럼 사람들의 심리를 파악한 듯 진화해가고 있었고, 완벽한 거짓이 아니라 파편화된 사실과 뒤엉켜 혼란을 더욱 가중시켰다며 가짜뉴스 현상을 분석한 후,[43] 가짜뉴스를 판별할 수 있는 기준과 방법을 제시했다. 예를 들면, 게시내용이 SNS에만 있는가 복수의 뉴스미디어에도 보도되는가, 극도의 분노나 희열, 공포 등 격한 감정의 언어를 담고 있는가, 메시지 제작자의 공적 주장에 개인적인 이해관계가 없는가 같은 것들이다. 코로나19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최근의 연구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이완수는 정보 소통 측면에서의 인포데믹 특징을, “트위터, 페이스북, 유튜브와 같은 소셜미디어는 물론 주류 전통 미디어까지 가세하는 복합적인 양상을 보이며, 불확실한 정보의 과잉화로 인

40) 김태종,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한국콘텐츠학회, 2020, 457-466면.
41) 함승경 · 김혜정 · 김영욱, 「코로나19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슈 주기 및 언론사 정치적 지향에 따른 주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적용」, 『한국언론학보』 65-1, 한국언론학회, 2021, 182면.
42) 안치용, 『코로나 인문학』, 김영사, 2021, 220면.
43) 황치성, 『코로나19 가짜뉴스 수사학: 미디어리터러시 원리로 푸는 26가지 생각 레시피』, 교육과학사, 2020, 6-8면.

지 부하를 초래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무엇이 옳고 그른지, 사실인지 의견인지, 그리고 객관적인지 편향적인지를 구분하기 어렵게 한다." 등으로 제시한다.[44] 이들 모두 중심을 잡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한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인류가 동일한 위험을 겪고 있고, 다시 평온을 찾아야 한다는 공동의 목표와 지향점을 갖게 된 상태에서, 인류가 상호의존 속에서 협력하는 삶을 이어 왔고, 도덕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음을 인류에게 다시 상기시켜서 깨닫게 했다. 인간 도덕의 탄생과 진화를 다룬 토마셀로(M. Tomaselo)는 집단 지향성이 도덕의 진화에 중요한 모멘텀을 제공했다고 설명한다. 그는 "현대 인류의 집단 지향성은 관습적인 문화적 관행 · 규범 · 제도의 집단 중심적인 세계에서 효과적으로 기능하는 개인들의 능력을 촉진하는 인지적 적응을 이루었고, 집단 지향성의 인지 기술이 없이는 도덕적 승인에 대한 반성적 기술이나 온전히 발달한 죄책감 같은 도덕적 자기규제 과정이 있을 수 없었음"을 제시하여,[45] 도덕의 기원에서 집단 지향성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코로나19는 인류가 공동으로 퇴치해야 할 목표가 주어진 상태에서, 소중한 일상을 회복하고 삶을 존속시키기 위해서 집단 면역과 노력이 중요함을 일깨워주었다. 인류가 오래 동안 잊고 외면하며 살았던 도덕적 삶과 윤리 문제에 대해서도 돌아보게 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 사회에 여러 과제를 던져 주었다. 팬데믹 이후의 삶에서 무엇을 중요하게 고려하고 대비해야 하는지 점검하는 것도 긴요한 과제이다. 감염병 이후의 각 시기별 사회 변화와 사회적 이슈를 제시한 박성원 · 김유빈은,[46] "면대면을 회피하는 경향이 확산되고 강화되면 개인들은 자신만의 세계로 빠져들어 반사회적 생활방식을 만들 수도 있고, 극단적인 경우 사회시스템을 파괴하는 범죄자(소시오패스)가 등장하는 경우도 예상해볼 수 있다"고 경고한다.[47] 박혜영의 지적대로, '사이버공간에서는 아무리 촉수

44) 이완수, 「코로나19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커뮤니케이션학과 행동과학의 통합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7-3, 한국언론학회, 2021, 354-355면.
45) M. Tomasello, 유강은 역, 『도덕의 기원』, 이데아, 2018, 282면.
46) 박성원 · 김유빈,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적 이슈」, 『동향과 전망』 109,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0, 35-67면.

를 예민하게 세운다 하더라도 벌거벗은 얼굴을 근접거리에서 직접 접촉함으로써 느끼게 되는 촉각적 반성의 힘에는 미치기 어렵기'[48] 때문에 비대면 상황의 정보소통과 공감에 더욱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코로나19 발생 이후의 사회에 필요한 것은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 소통, 면대면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공감과 연대 기회의 확대와 함께, 개개인이 갖춰야 할 중요한 자산으로서 정신적 면역력과 종합적 사고이다. '동양적인 사고방법으로 대상이나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관계에 의한 판단을 하는 종합적 사고(holistic thinking)는 건강관여도를 매개하여 위험 지각에 영향을 미치므로,'[49] 앞으로 닥칠 코로나19와 유사한 위험 상황에서는 인종과 문화를 떠나 누구나 갖춰야 할 덕목이다. 이 점이 한국사상의 회통적 성격을 들여다보게 된 이유이기도 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한국의 초기 정보 소통은 주로 방역 대응과 치료, 백신 개발 관련 현황을 알리고 방역 단계를 조정하는 것과 관련된 갈등 관계를 다루는 데 모아졌다. 위험한 상황에서 공감하고 연대하는 가치와 사례, 병들고 죽는 것의 의미를 차분히 성찰하게 하는 각성의 계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삶의 의미를 깨우치며 얻는 희열과 즐거움의 메시지를 전하는 소통은 부족했다. 건강, 질병, 경제, 보상 지원 같은 분야별 이슈에 매몰되어 사회와 환경, 생태 전체를 조망하게 하는 거시적인 정보의 소통 역시 부족했다. 제도권 언론은 가짜뉴스와 잘못된 정보가 증폭 유통되는 상황에서 중심을 잡고, 공정하면서도 정확하고 신속한 그러면서 울림을 주는 소식을 전하는 데 성공적이지 못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방역이 성공적이었다는 평가를 받는 데는 시민들의 정서, 태도에 영향을 미친 한국사상의 원류, 회통적 성격이 바탕에서 작용했으리라 보고, 그 시사와 함의에 주목해보고자 한다.

---

47) 같은 글, 60면.
48) 박혜영,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타자구성과 접촉공간의 변모에 대한 생태적 성찰」, 『젠더와 문화』 13-2,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2020, 33면.
49) 우미원・이종윤・전종우, 「종합적 사고경향이 코로나19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낙인효과」,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9-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212면.

4. 한국사상의 회통성이 코로나19 정보소통에 준 시사점과 함의

한국사상의 회통성은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삶의 의미와 지향점을 궁구하며 성실히 살아가는 것이 중요함을 사람들에게 일러주기 위한 지혜를 찾아가는 과정 속에서 형성한 사고의 흐름이자 하나의 맥이라 할 수 있다. 회통한다는 것은 하나만을 고집하지도 집착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말한다. 회통은 유가의 중용과 권도, 불가의 중도와 화쟁, '도가의 수일과 좌망'[50]이 한 이치로 회통된다는 깨달음 속에서 얻어지는 삶의 지혜라 할 수 있다.

한국사상의 회통적 성격은 현실적으로는 종교, 학맥, 분파 간의 경계를 넘고, 자아와 타자, 주체와 대상, 하늘과 땅, 인간과 사물 간의 구별을 넘어 화합, 교감, 소통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한국사상이 경계와 구별을 넘어 일통, 화쟁, 융화를 지향하는 성격은 코로나19 상황의 소통에 윤리적 시사와 함의를 전해줄 수 있으리라 본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무엇보다 소통과 교감이 절실히 요구되는 국면으로 전개된다. 개인은 매일 매 순간, 자신의 주변을 살피고 처신과 행동을 신경 써야 하는 상황을 맞는다. 이전에는 해보지 못한 경험 속에서, 사람 사이의 만남,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생각해보게 된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공동의 목표를 향해가는 집단지향이 필요하다. 크건 작건 누구나 고통을 겪는 상황에서, 공동의 목표는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고통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공동의 목표, 집단 지향이 생기면 앞에서 토마셀로가 지적하듯이 새로운 도덕이 탄생할 가능성이 커진다. 공동 운명체라는 의식이 새로운 도덕의식을 깨운다. 외국인 노동자, 난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 타자를 보는 시선, 동물을 보는 시각, 자연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나아가 사물을 보는 관점,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진다, 세상을 다르게 보면,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달라지고 다른 삶을 살 가능성도 열린다.

한국사상의 회통성이 바로 이 지점에서 의식의 전회(turn)를 이끌 모멘텀을 제공할 수 있다고 본다. 시민들은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순간순간 평

50) 고혜림, 「靜坐에 대한 연구」, 『儒教思想文化硏究』 70, 한국유교학회, 2017, 278면.

온한 일상의 소중함을 자각하며 일상의 회복을 꿈꿨다. 그러면서 자칫 방심하거나 방역을 소홀히 하면 어김없이 엄중한 상황이 전개되는 현실을 맞았다. 평온한 일상의 이상세계를 기대하고 기원하면서 동시에 고통을 감내하고 긴장의 끈을 늦출 수 없는 현실을 살아간다.

시민들은 한 마음에 공(空)과 가(假), 미발(未發)과 이발(已發), 정(靜)과 동(動), 지(止)와 관(觀)과 같은 진여와 생멸의 이문이 얽힌 상태로 현실을 살아간다. 마스크를 쓴 공간과 벗은 공간, 검사 또는 감염 이전 시간과 이후 시간, 대면 세계와 비대면 세계를 오가며 산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시민들 누구도 예전엔 경험해보지 못한 특이한 경험을 하게 하고, 자각과 성찰의 계기를 갖게 하고, 나아가 이상과 현실의 경계 속에서 중도와 시중의 지혜에 대해 생각할 기회를 갖게 했다. 한국사상의 회통성은 이 지점에서 시민들이 무의식적 심성과 잠재적 역량을 발휘하는 심리적 동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시민들은 '통'과 '중'의 인식, 행동이 필요함을 느낀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은 누구는 이득을 보게 하고, 누구는 고통과 곤란을 겪게 하며, '그간의 역사에 비춰보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더 치명적인 결과를 낳을 것'이라는 예측을 현실화했다.[51]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르게 사는 것인지, 공정과 정의가 무엇인지, 불평등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고 '생태복지국가'로 갈 것인지에 대해서 숙고하게 만들었다.[52] 그 전에는 잊고 살았던 문제, 시장 원리와 법의 논리로만 살면서 교과서에서나 들어봤음직한 윤리 도덕의 문제가 시민들 의식의 표면으로 떠오르게 했다. 나아가 성장 지향, 효율 지향의 삶 속에서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던 환경 문제, 생태 문제, 생물 다양성 문제를 나와 내 가족의 생명과 직결된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는 계기를 제공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박쥐나 천산갑 같은 동물을 거쳐 인간에게 옮겨오고, 거꾸로 인간을 거쳐 반려 동물에게 옮겨질 수 있다는 인수공통의 병원체로 부상하면서 인간과 동물 사이의 관계를 다시

51) 하승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삶과 생태시회주의」, 『문화과학』 103, 문화과학사, 2020, 97-116면.
52) 이병천, 「거대한 위기와 전환의 정치: 지속가능한 생태복지국가로 가는 길」, 『공공사회연구』, 11-1, 한국공공사회학회, 2021, 249-267면.

생각하게 만들었다. 이 과정에서 기후변화의 문제까지 포함한 지구적, 생태적 사고의 필요성도 재인식하게 됐다.

셸리 케이건(Shelly Kagan)은 사람과 동물을 윤리적으로 같이 대하고 헤아려야 하는가, 사람이 동물들을 대하고 헤아릴 때에는 무엇을 기준으로 차등적으로 대할 것인가에 관한 긴 논의 끝에 동물의 권리를 고려하고 논의하는 일은 결국 인간의 가치를 찾는 일이며, 인간은 그 일에 이제 세밀하게 나서야 할 때라고 강조한다. 사람이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을 동물의 삶에 투영하는 것이 유의미한 작업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하고, 동물에게 '무엇을 줄 수 있느냐가 사람의 가치를 결정한다'는 것이다.[53] 코로나19는 인간이 동물과도 나눠야 할 시점에 와있고, 나아가 생명체, 물질계 전체와 공존을 이뤄야 한다는 점을 더욱 분명히 했다.

수없이 꿈꾸며 수많은 생각, 감정, 오감 속에 사는 인간은 언제든 마음만 먹으면 환상 세계와 현실 세계를 오갈 수 있다. 바라는 세계를 꿈꾸다가 현실로 돌아오고, 현실에서 실제 삶을 살다가 다시 바라는 세계를 꿈꾼다. 이렇게 현실과 이상 세계를 오가며 유동하는 마음은 모두 한 마음에서 나온다. 앞에서 양자인지심리학으로 설명하듯이 'happy'와 'unhappy'한 상태가 중첩돼 있다. 여기서 현실과 이상 세계로 향하는 마음을 안으로 돌려서 마음이 일어나는 바탕을 보면 텅 빈 공적의 자리를 보게 된다[廻光返照]. 이 적멸의 바탕 자리에서는 시공간, 자타의 구별과, 시비, 호오, 미추, 선악의 분별이 없이 오직 고요함만 있다. 이것은 마치 깊은 심연이나 대양의 잔잔한 수면과 같은 고요의 상태로, 언제라도 물결이 일고 파도가 출렁일 수 있는 잠재, 가능, 미발의 상태다. 여기서 미발의 고요한 적멸의 상태가 진여의 세계에 해당되고, 물결과 파도가 출렁이는 이발의 상태가 생멸의 세계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한 마음에 진여의 세계와 생멸의 세계가 얽혀 있는 것이다.

한국사상의 회통의 관점은 꿈과 현실, 환상과 실제, 진여와 생멸이 '통'함을 알고, 나아가 이 모두가 한 마음에서 나오고 진여문과 생멸문이 한 마음

53) S. Kagan, 김후 역, 『어떻게 동물을 헤아릴 것인가: 사람과 동물의 윤리적 공존을 위하여』, 안타레스, 2019, 480면.

임을 아는 '중'의 지혜로 의식을 각성 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사상의 회통성을 바탕으로 '상성성(常惺惺)' '거경궁리(居敬窮理)' '공적영지(空寂靈智)' '쌍차쌍조(雙遮雙照)' 등의 공부법으로 의식을 각성시키고 거듭난다면, '사사무애(事事無碍)'의 화엄 세계가 펼쳐지는 경험을 해볼 수도 있다. 일심이문(一心二門), 치중화(致中和)의 이치로 살아간다면, 선각자들이 전하고자 하는 삶의 경지와 지혜의 실현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54]

중도와 중용의 이치로 향상의 길을 살아간다면, 이후의 삶은 달라질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이 우리에게 던져준 소중한 기회를 각성의 계기로 삼는다면, 즉 진여와 생멸이 한 마음임을 알아 일체 걸림이 없이 살 수 있다면 그 길로 생사를 초월하고[一切無礙人 一道出生死], 만물과 융화할 수 있는 경계에도 다가갈 수 있다고 본다. 그러면 오랜 타성과 훈습으로 고착됐던 생각의 틀도 바뀌고, 자동으로 작동했던 뇌의 회로가 다시 설정될 수 있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과 다르게 살 길이 열릴 가능성도 커진다. 인간, 자연, 환경, 동식물, 미생물 등 지구 생태계를 고려하고, 영세 소상공인, 성소수자, 장애인, 외국인 노동자, 난민 등 사회적 취약계층, '타자화된 존재들'[55]을 배려하면서, 의식의 각성,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은 여간한 의지나 의식적인 노력으로는 하기 어려운, 공감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했다. 누구나 감염될 수 있고, 환자가 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에서 모두가 타인에게 민감했고, 환자나 의료진들이 겪

54) 여기서 환상과 현실 세계를 오가는 마음으로 깨달음에 이르는 것을 『원각경』의 삼관에 비유해 볼 수 있는데, 탄허가 삼관에 대해 설명한 것은 다음과 같다(권기완, 「탄허택성의 선사상 연구: 역경관(譯經觀)과 수행관(修行觀)을 중심으로」, 『佛教學報』 76,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6, 235면 참조). 정관(靜觀)이란 한 생각 일어나는 데서 고요히 관하기를 "이 한 생각이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는 것이다. 일어나는 자리가 없는 것을 보면 고요해지는 것이니 고요한 것이 극치에 이르면 마침내 밝아진다. 환관(幻觀)이란 밖의 경계를 보는 공부인데 보고 듣는 그 모두를 헛것이라고 관하는 것이다. 우리는 꿈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꿈에 집착하지 않는다. 우주 만상이 환(幻)임을 보게 되면 집착에서 떠나게 되고 자성이 밝아온다. 거기서 온갖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적관(寂觀)이란 정관과 환관이 한 덩어리가 된 것이다. 안으로 일어나는 것도 없고 밖으로 모든 물상(物象)이 다 빈 것이다. 여기서 적연부동한 경지를 얻게 되어 마침내 깨닫는다. 주관과 객관이 한 덩어리가 되어 닦는 방법인 것이다.

55) 권창규, 「감염병 위기와 타자화된 존재들」, 『현대문학의 연구』 72,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163-207면.

는 곤란과 고통에 공감했다. 팬데믹 상황에서 벗어나 안정을 찾고 평상심을 회복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되기를 기대한다. 의사가 환자가 됐다가 회복하면 진정한 의미의 '상처 입은 치료자(wounded healer)'로 재탄생한다고 한다. 그것은 '환자와 의사의 시각 모두를 체화했다는 의미이고, 둘 사이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 수 있게 된다는 의미이며, 의사를 포함한 모든 인간은 결국 환자가 된다는 평범하지만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56] 환자였던 의사는 회통의 삶, 회통의 윤리를 실현하는 한 사례로서 팬데믹을 겪는 동시대인들에게 시사해주는 바가 있다.

한국사상의 회통적 성격이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소통에 주는 윤리적 함의는 진여와 생멸이 한 마음임을 깨달아 각성된 의식으로 공감과 연대의 소통을 할 수 있고, 해야 한다는 가능과 당위의 가치를 전해준다는 데서 찾을 수 있다. 고통스럽게 지난 2년여 기간 동안 코로나19 상황을 겪으면서 의식이 각성되는 사람, 세상을 다르게 보는 사람이 출현한다면, 그것은 지난 시간이 헛되지 않았다는 의미이고, 앞으로 닥칠 유사한 위기 상황에서도 더 지혜롭게 대처하며 소통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의미이다. 많은 사람이 '근대적 소아를 넘어 생태적 대아로 나아가는' 계기를 맞는다면,[57] 더욱 다행스러운 일이다.

코로나19 이후는 인류가 바라는 세계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에 이웃과 공감하고 연대하면서 의식의 각성을 돕고 즐거움을 같이 누리는 소통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는 회통의 윤리가 펼쳐지기를 기대한다. 공감과 연대는 한국사상의 '통'의 가치를, 의식의 각성과 즐거움은 한국사상의 '중'의 가치를 담는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통'의 시선으로 우리는 '고통당하는 이들이 우리의 동료임을 감성적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는 로티적 감성윤리학,'[58] '나의 경계를 넘어 타인에 대한 관심을 확장시키는 거시도덕 차원의 교육'[59]을 품을

56) 황임경,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의철학연구』 25, 한국의철학회, 2018, 79-80면.
57) 홍성민, 「코로나19와 생태 지혜로의 전환」, 『교양교육과 시민』 3, 숙명여대 교양교육연구소, 2021, 71면.
58) 박대원, 「시민교육과 로티적 감성윤리학」, 『大同哲學』 93, 대동철학회, 2020, 197-214면.

수 있고, '중'의 시각으로 우리는 '현실 문제를 추론할 때 자신의 관점에서 벗어나 더 넓은 관점, 궁극적으로는 우주적 관점'[60]도 취할 수 있다.

회통의 윤리는 과거 '풍류'가 유불선 삼교를 포함했듯이, 인의예지의 덕목을 지키며 지속가능한 삶을 살게 하고, 삼라만상의 이치를 깨닫고 주체적 삶을 살게 하며, 생명체, 자연과 공진화하며 자족의 삶을 살게 하는 윤리와 같이, 모든 존재 간 공생과 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윤리를 모두 포함한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이윤종은 최근 과학철학자 머천트(Merchant)가 한 저서[61]에서 제시한 '동반자 윤리(partnership ethic)'를 소개하는데, 이것도 그 한 예가 될 것이다. 이 윤리는 '인간과 비인간 자연 양자가 지구상에서 함께 지속가능한 삶을 유지하기 위해, 즉 공존·공생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동반자로 인식할 필요가 있고 이를 위해 양자의 평등한 관계와 이를 위한 서로의 배려와 존중 및 돌봄이 필요하다는 것'을 모토로 한다.[62]

코로나19 팬데믹은 레거시 미디어 중심의 정보 소통이 위기 상황에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드러나게 했다. 방역 당국과 시민은 방역 활동과 백신 접종에 스마트폰과 소셜미디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여 한국의 방역이 돋보이게 했다. 데이터와 네트워크가 중요한 AI 시대는 사람과 미디어의 경계가 사라지고 사람이 시공간에서 벌이는 모든 활동 흔적들이 미디어를 통해 전송, 축적, 활용되면서 인간-미디어, 인간-기계가 융화, 공생하는 포스트휴먼 시대이다.

박선희는 포스트 휴먼 시대에 인간-미디어 공생체 사회가 만들어갈 사회성의 윤리 및 사회문화적 실체들을 탐색하고, 유목적 주체로서 연결 짓기, 친척 만들기, 응답하기와 책임지기, 자동화에 저항하기 등을 제안한다.[63] 코

59) 박형빈, 「사회신경과학과 정신건강의학 관점에서 본 팬데믹 시대: 도덕교육의 의미와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70,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1, 230면.
60) P. Singer, 노승영 역,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이기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실천윤리』, 시대의창, 2015, 340면.
61) Merchant, Carolyn,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Y: Harper One, 2020.
62) 이윤종, 「인류세와 인문학: 캐롤린 머천트의 생태 페미니즘이 조망하는 지구와 인문학의 미래」, 『대중서사연구』 27-2, 대중서사학회, 2021, 280면.
63) 박선희, 「인간-미디어 공생체의 사회: 포스트휴먼의 사회성과 윤리적 실천」, 『언론과 사회』, 29-4,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1, 5-49면.

로나19 이후의 “인간-미디어 공생체는 무한한 접속을 통해 새로운 관계 맺음의 가능성을 항상 열어놓고 경험을 공유하고 소통하며 사회적 유대를 쌓아가는 연결 짓기를 실천할 필요가 있다”는 측면에서,[64] 한국사상의 회통성과 회통의 윤리에서 시사 받을 점이 크다 하겠다.

5. 마무리 및 제언

지금까지 한국사상의 회통적 성격과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의 초기 정보소통을 관련 연구들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코로나19 상황과 이후의 삶에 한국사상의 회통성이 어떤 시사점과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지를 논의해 보았다. 한국사상의 회통성은 모순 대립을 지양하며 만물이 상통하는 ‘통’과, 양극단을 포용하며 중심을 잡고 상황에 적중하는 ‘중’의 가치를 실현하면서, 무지와 고통에서 벗어나 향상의 삶을 지향하고자 하는 사상의 흐름으로 정리해 보았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의 초기 정보소통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가 초기 방역의 성과에 주된 요인으로 작용한 국면에서 언론의 보도는 팬데믹을 극복하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못했고, 우울, 두려움을 넘어설 정신적 면역력과 종합적 사고에 도움이 될 정보 소통이 필요함을 확인했다.

한국사상의 회통성이 정보 소통에 주는 함의는 ‘통’의 가치로서의 공감과 연대, ‘중’의 가치로서의 의식의 각성과 즐거움이라고 정리하면서, 이들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회통의 윤리를 제안했다. 회통의 윤리는 유불선의 종지를 현대적으로 구현하는 윤리를 포함하면서 모든 존재의 공생과 소통을 원활히 이루어지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해 보았다.

이 글을 마무리할 즈음에, “정보는 인간, 기계, 자연, 생명 같은 세계 내 존재들을 사유할 수 있는 존재론적인 토대이며, 이 토대에 관한 관심을 통해 우리는 기술에 관한 정보, 생물에 관한 정보, 기호에 관한 정보, 사회에 관한 정보, 자연에 관한 정보 등 정보가 세계를 이해하는 보편 형식 중 하나임을 확인하고 이를 통해 세계 자체에 대한 이해를 확장해 갈 수 있다”[65]는 정보

64) 같은 글, 30면.

철학 관점을 가진 플로리디(L. Floridi)의 정보윤리학을 접했다. 이 윤리학은 "인간은 물론 인간 이외의 존재들을 정보라는 근본 범주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존재론적 시각을 바탕으로, 존재들 일반에 적용 가능한 일반적인 윤리 이론을 제공하려고 시도한다."[66] 유용민에 따르면, '인간 중심주의의 재구성' 또는 '인간 역할의 재개념화'를 시도하는 플로리디는 "인간과 생명이라는 전통적 범주를 넘어서 비인간 존재 일반을 고려하는 윤리학적 확장 안에서도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갖는 중요성과 가치를 강조하려고 시도"한다.[67] 정보윤리학에서도 정보가 존재론적인 토대가 된다는 점에서 회통 윤리의 '통'과, 여전히 인간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는 점에서 회통 윤리의 '중'과 맥이 닿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정신적 물질적 고통으로 힘든 시기를 넘어가는 동시대인들이 지난 시간을 잃어버린 시간으로만 여기지 않고, 무언가 얻은 게 있는 시간, 학습한 게 있는 시간으로 여겼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이 연구를 시작했다. 한국사상의 선지식들은 무엇을 위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기 위해 사색하고 고민하고 궁리했을까를 찾아보면, 그 속에서 어떤 지혜의 실마리를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바람으로 시작했다. 연구가 의도했던 기대와 목표에는 충분히 미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지만, 한국사상의 맥과 요체를 전체적으로 조망해봤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한다.

한 가지 제언이자 바람이 있다면, 한국사상을 문헌 속에만 가두어 두지 말고, 현실에 도움이 되게 삶의 문제에 연결시키고 투영해서 그 가치를 되살려 보자는 것이다. 이 글이 그런 의도에 많이 미흡하지만, 앞으로 이어질 많은 충실한 연구들에 자극을 주는 역할을 할 수 있다면 다행이라 하겠다.

65) 유용민,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윤리학 모색: 루치아노 플로리디의 정보윤리학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8-2, 한국언론학회, 2022, 24면.
66) 같은 글, 29면.
67) 같은 글, 40면.

▮ 참고문헌

『三國史記』
『易經』
『中庸』

강수택, 「글로벌 팬데믹 시대, 연대영역의 변화양상」, 『사회와 이론』 37집, 한국이론사회학회, 2020, 183-230면.
강 철,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 메시지는 어떻게 소통되어야 하는가?: '격리 중 자기돌봄'과 '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거리두기'라는 표현을 사용하자」, 『철학』 143, 한국철학회, 2020, 87-109면.
고길곤・김범, 「한국의 코로나19 대응 평가에 대한 비판적 검토」, 『행정논총』 58-4, 서울대 한국행정연구소, 2020, 1-29면.
고영섭, 「탄허 택성의 老莊觀과 佛敎觀: 노자도덕경 選註와 장자남화경 講解를 중심으로」, 『文학 史학 哲학』 33,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62-98면.
고혜림, 「靜坐에 대한 연구」, 『儒敎思想文化硏究』 70, 한국유교학회, 2017, 257-285면.
권기완, 「呑虛宅成과 東洋思想: 『周易』의 宗旨와 『老』・『莊』의 注解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78, 한국불교학회, 2016, 217-246면.
권기완, 「탄허택성의 선사상 연구: 역경관(譯經觀)과 수행관(修行觀)을 중심으로」, 『佛敎學報』 76,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2016, 221-245면.
권기완, 「탄허선사의 유교 경전에 대한 불교적 해석: 『논어』를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1, 한국불교학회, 2017, 215-245면.
권창규, 「감염병 위기와 타자화된 존재들」, 『현대문학의 연구』 72, 한국문학연구학회, 2020, 163-207면.
권호천, 『크라이시스 커뮤니케이션』, 새녘출판사, 2021.
김교빈, 『한국철학 에세이: 인물로 보는 우리 철학의 흐름』, 동녘, 2008.
김석동, 「한국의 코로나19 위기대응에서 '민주적' 발전국가의 역할: 국가역량의 제도적 진화와 거버넌스 평가」, 『국제정치논총』 62-1, 한국국제정치학회, 2022, 45-91면.
김용환, 「법계와 복례의 회통연구」, 『한국교수불자연합학회지』 16-2, 한국교수불자연합회, 2010, 1-16면.
김용휘, 「한국선도의 전개와 신종교의 성립: 왜 한국에선 도교 교단이 성립되지 않았는가」, 『동양철학연구』 55, 동양철학연구회, 2008, 139-167면.
김재인, 『뉴노멀의 철학』, 동아시아, 2020.
김태종, 「뉴스 빅데이터를 활용한 코로나19 언론보도 분석: 토픽모델링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0-5, 한국콘텐츠학회, 2020, 457-466면.
문 광, 「탄허선사 유불회통론의 '탄(呑)적 가풍' 연구: 유교 『중용(中庸)』의 미발론(未發論)과 관련하여」, 『文학 史학 哲학』 28・29, 한국불교사연구소, 2012, 75-115면.
박기철, 「정치홍보가 아닌 PR정치란 무엇일까?: 의미정립, 관련사상, 역할방향 제안」, 『한국소통학보』 18, 한국소통학회, 2012, 121-164면.
박대원, 「시민교육과 로티적 감성윤리학」, 『大同哲學』 93, 대동철학회, 2020, 197-214면.
박선희, 「인간-미디어 공생체의 사회: 포스트휴먼의 사회성과 윤리적 실천」, 『언론과 사회』 29-4, 사단법인 언론과 사회, 2021, 5-49면.

박성원・김유빈, 「사스에서 코로나19까지: 세계적 감염병과 사회적 이슈」, 『동향과 전망』 109, 한국사회과학연구회, 2020, 35-67면.
박순열, 「'사회'는 코로나-19에 대처할 수 있는가?: 사회의 가능성과 변화에 대한 관찰」, 『공간과 사회』 30-3, 한국공간환경학회, 2020, 62-98면.
박정원, 「조선 초・중기 불교와 유교의 심성론과 상호인식: 공적영지와 미발지각 개념을 중심으로」, 『韓國思想史學』 62, 한국사상사학회, 2019, 89-126면.
박종천, 「풍류(風流)로 보는 한국종교의 에토스」, 『민족문화연구』 88,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0, 79-116면.
박진우, 「팬데믹의 순간과 '뉴노멀'의 문화정치: 위기 국면의 담론 구조에 대한 비판」, 『한국언론정보학보』 109, 2021, 9-39면.
박형빈, 「사회신경과학과 정신건강의학 관점에서 본 팬데믹 시대: 도덕교육의 의미와 과제」, 『도덕윤리과교육』 70, 한국도덕윤리과교육학회, 2021, 211-237면.
박혜영,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타자구성과 접촉공간의 변모에 대한 생태적 성찰」, 『젠더와문화』 13-2, 계명대 여성학연구소, 2020, 7-39면.
박희병, 『운화와 근대: 최한기 사상에 대한 음미』, 돌베개, 2003.
안종주, 『코로나 전쟁, 인간과 인간의 싸움』, 동아엠엔비, 2020.
안치용, 『코로나 인문학』, 김영사, 2021.
오경후, 「麗末鮮初 己和의 儒・佛會通論」, 『韓國思想과 文化』 32, 한국사상문화학회, 2006, 95-126면.
오현진, 「코로나19 위기 대응과 정부-시민 관계: 정치신뢰를 중심으로」, 『한국과 국제정치』 37-1,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2021, 1-35면.
우미원・이종윤・전종우, 「종합적 사고경향이 코로나19 인식에 미치는 영향과 낙인효과」, 『커뮤니케이션학 연구』 29-1, 한국커뮤니케이션학회, 2021, 197-218면.
유동식, 『풍류도와 예술신학』, 한들출판사, 2006.
유용민, 「인공지능 시대의 새로운 윤리학 모색: 루치아노 플로리디의 정보윤리학을 중심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8-2, 한국언론학회, 2022, 5-51면.
유원기, 「한국사상과 한국철학」, 『大同哲學』 93, 대동철학회, 2020, 359-382면.
윤석효, 「신라 下代의 固有思想硏究」, 『역사와 실학』 31, 역사실학회, 2006, 1-52면.
이난수, 「근대전환기 '風流' 인식으로 본 한국사상의 원형문제」, 『陽明學』 51, 한국양명학회, 2018, 375-399면.
이동헌・이향아, 「전염병 위기 관리하기: 2020년 한국의 코로나19 전염병 위기와 국가-사회관계」, 『경제와사회』 129, 비판사회학회, 2021, 39-81면.
이병천, 「거대한 위기와 전환의 정치: 지속가능한 생태복지국가로 가는 길」, 『공공사회연구』, 11-1, 한국공공사회학회, 2021, 249-267면.
이슬기・이혁규・유나리, 「리스크 커뮤니케이션과 정부신뢰에 관한 연구: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전자정부 역량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융합사회와 공공정책』 14-4, 단국대 융합사회연구소, 2021, 271-305면.
이완수, 「코로나19 "인포데믹" 현상에 대한 이론적 고찰: 커뮤니케이션학과 행동과학의 통합 적용」, 『커뮤니케이션 이론』 17-3, 한국언론학회, 2021, 306-375면.
이원선, 「원융중도사상과 현대심리학과의 관련성 연구: 천태의 원융사상과 양자인지심리학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89, 한국불교학회, 2019, 331-362면.

이원선, 「공・가・중 삼제삼관 원리에 관한 신경과학적 고찰: 뇌의 구조와 기능을 중심으로」, 『한국불교학』 93, 한국불교학회, 2020, 375-403면.
이윤종, 「인류세와 인문학: 캐롤린 머천트의 생태 페미니즘이 조망하는 지구와 인문학의 미래」, 『대중서사연구』 27-2, 대중서사학회, 2021, 265-291면.
이종원, 「혐오에서 공감과 환대에로: 코로나19 시대의 공감과 환대」, 『기독교사회윤리』 49,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1, 105-138면.
장현오, 「東學의 韓民族 精神史的 意義」, 『철학논총』 99, 새한철학회, 2020, 219-251면.
전준모, 「淸寒 雪岑의 『曹洞五位要解』 연구」, 『한국불교사연구』 19, 한국불교사연구소, 2021, 213-240면.
정성식, 「고려 중・후기 유학자의 불교 교섭」, 『東洋古典硏究』 83, 동양고전학회, 2021, 9-32면.
정연수, 「한국사상의 연원에 관한 중등 교과서 문제」, 『동양철학연구』 101, 동양철학연구회, 2020, 197-228면.
정의철, 「감염병 위기 속 '시민됨'에 대한 인문사회과학적 성찰: 불평등에 맞선 '보건소통연구'의 역할 탐색」, 『커뮤니케이션 이론』 17-2. 한국언론학회, 2021, 171-222면.
정호영, 「『화엄일승법계도』에 나타난 의상의 중도적 사유」, 『불교연구』 42, 한국불교연구원, 2015, 221-251면.
조민정・이신행, 「코로나19 관련 언론 보도 프레임 분석: 자료기반 자동화 프레임 추출 방법을 중심으로」, 『한국소통학보』 20-1, 한국소통학회, 2021, 65-107면.
조해정, 「상호문화적 대화의 관점에서 본 플라톤과 나가르주나: 중도와 적도 개념을 중심으로」, 『코기토』 84, 부산대 인문학연구소, 2018, 40-74면.
진태원 외, 「사상으로서의 코로나: 제1회 한국학 페스티벌 좌담회 녹취록」, 『민족문화연구』 94, 고려대 민족문화연구원, 2022, 13-65면.
최일범, 「中道思想과 中庸思想의 세계관과 인식방법에 관한 고찰」, 『종교연구』 8, 한국종교학회, 1992, 13-28면.
최재목, 「탄허의 철학사상에 보이는 '會通'적 사유의 근저: 예언, 민족주의, 신비주의의 '풍류도적 방법'에 대해」, 『文학 史학 哲학』 33, 한국불교사연구소, 2013, 166-203면.
최창식, 「가짜뉴스에 대한 감정이 사실 확인 노력에 미치는 영향: 불확실성 관리 이론을 바탕으로」, 『커뮤니케이션 이론』 17-1, 한국언론학회, 2021, 5-53면.
하승우, 「코로나19 팬데믹 이후의 삶과 생태시회주의」, 『문화과학』 103, 문화과학사, 2020, 97-116면.
한자경, 『한국철학의 맥』, 이화여대 출판부, 2008.
함승경・김혜정・김영욱, 「코로나19 언론보도 경향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이슈 주기 및 언론사 정치적 지향에 따른 주제 분석과 언어 네트워크 분석 적용」, 『한국언론학보』 65-1, 한국언론학회, 2021, 148-189면.
홍성민, 「코로나19와 생태 지혜로의 전환」, 『교양교육과 시민』 3, 숙명여대 교양교육연구소, 2021, 57-91면.
황경선, 「존재론적 관점으로 본 『중용中庸』의 중中 개념」, 『철학탐구』 55, 중앙대 중앙철학연구소, 2019, 1-30면.
황광욱・정성식・임선영, 『한 권으로 읽는 한국철학』, 동녘, 2007.

황의동, 「震默大師와 儒教와의 대화」, 『韓國思想과 文化』 56, 한국사상문화학회, 2011, 307-342면.
황임경, 「상처 입을 가능성(vulnerability)과 의학에서의 주체화」, 『의철학연구』 25, 한국의철학회, 2018, 51-86면.
황준연, 『한국사상의 길라잡이』, 박영사, 2001.
황치성, 『코로나19 가짜뉴스 수사학: 미디어리터러시 원리로 푸는 26가지 생각 레시피』, 교육과학사, 2020.
DiMoia, J. P., "Contact tracing and COVID-19: The South Korean context for public health enforcement,"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14(4)*, 2020, pp.657-665.
Ignatieff, M., 박중서 역, 『평범한 미덕의 공동체』, 원더박스, 2018.
Kagan, S., 김후 역, 『어떻게 동물을 헤아릴 것인가: 사람과 동물의 윤리적 공존을 위하여』, 안타레스, 2019.
Merchant, Carolyn, *The death of nature: Women, ecology, and the scientific revolution*, NY: Harper One, 2020.
Singer, P., 노승영 역, 『이렇게 살아가도 괜찮은가: 이기적인 사회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한 희망의 실천윤리』, 시대의창, 2015.
Tomasello, M., 유강은 역, 『도덕의 기원』, 이데아, 2018.

【Abstract】

Comprehensive traits of Korean thoughts and information communication in the COVID-19 pandemic

Lee, Keun-Yong*

This study intends to find the connection between the performance of Korean quarantine of COVID-19 and Korean traditional thoughts. This study attributes the success of Korean quarantine to the traits of Korean thoughts to form the consciousness, emotion and attitude of citizens. Especially, this study focuses on the comprehensive or holistic traits of Korean thoughts. It contains 'tong' (通) which denies contradiction and opposition, and 'chung' (中) which poses at the pivot and fits the situation, and tries to enhance the livelihood free from pains and agonies. Information communication of COVID-19 in Korea was not helpful for the quarantine. It implies the necessity of information communication which help the citizens to form mental immunity for overcoming depression, fear, and so on, and to form holistic thinking. In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comprehensive ethic which contains both 'tong' as compassion and solidarity and 'chung' as enlightenment of consciousness and mental pleasure. Comprehensive ethic contains the essence of Confucianism, Buddhism, and Taoism and facilitates communication among all beings.

Keywords: Korean thoughts, comprehensiveness, mean, information, communication.

접수일: 2022.06.30. || 심사일: 2022.07.18. || 게재확정일: 2022.08.23.

* Professor, College of Multidisciplinary Studies toward Future, Youngsan Univ.